

내가 전문가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용희 | 부동산학과 졸업생



나를 되돌아보다

어떤 곳에 있건 마찬가지겠지만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나 같은 경우는 50대에 그게 왔다. 인생을 돌이켜보니 잘 한 것도 있고 잘못 한 것도 있었다. 뿐듯한 일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뒤섞인 기억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남았다. 아쉬운 일들은 만들지 말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보자. 답은 쉽게 나왔다. 바로 대학이었다.

농어촌에서 태어난 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꿈꾸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다녀야 했을 정도로 집안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부와 거리가 먼 학생은 아니었기에 입학하기가 까다로운 장학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시절만 해도 그런 학교들은 입학과 동시에 괜찮은 직장으로의 취업이 보장되어 있었다. 대학을 포기하는 대신 안정적이고 순탄한 인생을 달려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평생 남아 있던 모양이었다.

대학에 가리라 마음을 먹고 많은 정보들을 알아보았다. 마침 정부 차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후 취업을 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특설된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적지 않은 선택지 중 명지대 부동산학과를 선택했다. 내가 부동산 일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4차 산업으로서의 부동산학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때의 아내는 내가 가정에 소홀해질까봐 조심스럽게

반대의 뜻을 비쳤다. 가장의 역할과 학생의 신분은 어울리기 힘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아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아내는 결국 이왕 시작을 하는 거 끝까지 해보라며 나를 믿고, 지원해줬다. 고마운 일이었다.

나이를 숫자로 만들기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20대에 대학에 다니는 것과 50대에 대학을 다니는 건 다르다.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갓 입학한 스무 살과 같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나는 오히려 마음가짐과 이상을 공고히 했다. 그것을 실현하는 힘이 나이를 잊고 학교에 적응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혼한 이야기지만 나는 나이를 정말로 숫자로 만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다. 일을 하면서 학습에 정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요일에 퇴근시간을 양해 받고 온다 하더라도 리포트를 쓰는 시간과 시험공부를 하



는 시간은 항상 턱 없이 부족했다. 그 와중에 학생회 일까지 해야 했으니 학교에 다니던 4년간은 정말 바빴다. 하지만 내 선택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나로선 시간을 쪼개 쓰는 수밖에 없었다. 공부



자체를 어려워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수업에는 잘 따라갈 수 있었다.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수업은 부동산경제학이었다. 일반적인 경제학은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입을 해서 경제학적 측면으로 수요공급 이론을 바탕으로 시장을 분석하면 이해가 쉽다. 이 분석은 곧 부동산의 미래 전망을 예측하는 과정까지 발전 가능하다. 부동산 일을 하는 나로서는 더 없이 좋은 배움이었다. 고객의 갑작스러운 물음에도 책자를 뒤적이지 않고 브리핑이 가능해졌을 때 내가 전문가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일과 학업의 방향이 같을 때의 집중도는 막연히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집중력이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학의 매력

학교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은 일에 필요한 지식만이 아니었다. 내가 공부하는 학문의 매력을 알게 되고 졸업 후에도 계속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부동산학은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중간지대에 있으며 어디와 함께 해도 잘 어우러질 수 있다. 그래서 미래융합대학의 한 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동산학에 대한 사회 전반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이제는 산업 분류에서도 대분류에 속하게 되었다. 나는 이 부동산학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 생각하는 동시에 그리 되기를 바란다. 특히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학문이 앞으로의 진로를 크게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 낼 것이다. 나 역시 이론을 알고 현장에 있을 때 부동산 경기

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몸소 느꼈다. 그건 경험으로 미처 채울 수 없는 틈 같은 것이었다.

나는 분명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래도 좀 더 젊은 나이에 왔다면 더 많은 수학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아쉬움이 드는 이유는 부동산학이 그 만큼 멋진 학문이기 때문이다.